

축제에서 재현된 백제행렬복식의 현황연구 - 한성백제문화제와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중심으로 -

마 유 리 · 김 은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Baekje* Parade Costume Shown in Festivals - Focusing on *Hanseong Baekje* Cultural Festival and *Yeongam Wangin* Cultural Festival -

Yoo-Ree Ma · Eun-Jung Kim**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4. 11. 7. 접수; 2015. 2. 17. 수정; 2015. 2. 20. 채택)

Abstract

Festival costume shown in festival parades targeting historical events or figures helps to understand the theme of festival and grants visual effects and at the same time, is an important factor to identify then-cultural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make a periodic review of traditional costumes used in parades for Hanseong Baekje Cultural Festival and Yeongam Wangin Cultural Festival which are both the festivals that backgrounded Baekje period,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rchetypes of reproduction costume vs Baekje costume, understand the problems of festival costume, and seek developmental directions.

After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reproduction costume shown in festival parades, it was found that king costume, queen costume, governmental official costume, and humble class costume were all different from Baekje costume in terms of configuration, materials, color, shape, and creating method of costumes, and problems were drawn. When it comes to costume items, Pasul and Danryungpoh that didn't belong to Baekje period were worn. The problems in color research can be identified in governmental official costume. The problems in type of costume are shown in the length of po worn outside, margin of width, and degree of restoring accessories. Therefor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convey and identify costume creating method by festival parade-related persons.

Key Words: Festival costume(축제복식), Baekje costume(백제복식), Parade costume(행렬복식), Hanseong Baekje Cultural Festival(한성백제문화제), Yeongam Wangin Cultural Festival(영암왕인문화축제)

I. 서론

우리나라의 축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

시된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고유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주민화합, 지역 이미지 제고의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

Corresponding author ; Eun-Jung Kim
Tel. +82-62-530-1347, Fax. +82-62-530-1349
E-mail : kimej0234@hanmail.net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다. 축제에서 착용되는 축제복식 역시 지역축제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와 함께 축제의 시대적 배경과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써 다양한 기능과 유형으로 발달해 왔다. 축제복식이란 축제관계자가 축제를 개최하는 동안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으로, 축제관람객으로 하여금 축제관계자 역할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축제복식 중에서도 역사적 시대나 인물,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축제 속에서 재현된 전통복식은 체험복식, 안내복식, 공연복식, 의례복식, 시연복식, 풍물굿복식, 행렬복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착용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축제복식의 유형 중 행렬복식은 축제의 소재가 되는 인물이나 사건을 재현하여 대규모의 인원이 퍼레이드를 할 때 착용하게 되는 전통복식으로, 행렬의 규모로 인한 웅장함까지 느낄 수 있는 축제복식인 동시에 축제복식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복식 유형이라 생각된다. 특히 축제에서 행렬복식은 축제관계자나 관람객 모두 가장 많은 인원이 복식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된다는 점과 축제의 성격과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축제복식의 유형보다 복식학적으로 올바른 고증을 요하는 복식이라고 본다.

안인희(2014)는 문화원형이란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물이 구체화된 보편적인 표상이나 결과물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축제의 연행과정에서 착용하는 재현복식은 그 시대의 예술, 문화와 사회 구조, 생활양식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귀중한 문화원형이 되므로 면밀한 고증을 통한 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축제의 행렬에서 나타나는 축제복식은 축제 주제의 이해를 돕고 시각적 효과를 부여하는 역할 외에도 당시의 문화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백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축제의 행렬에 활용된 전통복식에 대한 시대적인 검토 및 재현복식과 백제복식 원형의 비교분석을 통해 축제복식의 문제점을 모색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와 유물자료의 고찰, 현장조사, 면담조사

등을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은 한성백제문화제의 ‘역사문화거리행렬’, 영암왕인문화축제의 ‘개막행차 왕인맞이’로 정하였는데, 두 축제 모두 2008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백제시대라는 공통된 시대를 축제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백제시대 복식을 착용하고 행렬을 하는 퍼레이드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백제시대 복식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백제복식의 구조와 형태

백제복식의 구조와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한성백제문화제, 영암왕인문화축제의 행렬에 나타난 백제복식을 군왕복, 왕비복, 관원복, 서민복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유추 가능한 백제복식 원형자료는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군왕복

백제의 군왕복에 관해서는 『三國史記』卷24百濟本紀 第2, 『舊唐書』卷199上 列傳 東夷 百濟傳의 기록에서

“...王服紫大袖袍, 青錦袴, 金花飾烏羅冠, 素皮帶, 烏韋履”

“百濟 其王服大袖紫袍, 青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

“왕은 소매가 큰 자주색 포에 푸른 비단바지를 입고, 오라관에 금화로 장식하며, 흰 가죽띠에 흑색 가죽신을 신는다.”

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군왕의 기본적 복식 구조는 유고(襦袴) 위에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포를 착용한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대수포의 소매넓이는 넓다고만 되어 있어 그 넓이를 추정하기가 애매하나 군왕이 입은 포이므로 매우 넓은 형태였을 것이다. 문헌에서는 백제왕의 바지를 특별히 청금고(靑錦袴)라

하였는데, 이는 청색바탕에 무늬가 새겨진 금직물로 만든 바지를 뜻한다. 이러한 청금고는 개구고(開口袴)였던 백제사신의 바지처럼 통이 넓고 밑단에 선을 두른 것으로, 백제왕의 청금고 또한 통이 넓은 바지 형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梁書』 卷54 第夷傳와 『南史』 列傳69 百濟에서

“異呼帽曰冠 襦曰複衫 袴曰禪”

“呼帽曰冠 襦曰複衫 袴曰禪”

“모자를 관이라 하고 저고리를 복삼이라 하며, 바지를 곤이라 한다.”

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백제왕의 자대수포 속에는 복삼(複衫)이라는 국속의 저고리와 바지를 기본으로 착용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금화식 오라관은 고깔형의 절풍관을 오라(烏羅)로 만들고, 여기에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제관식을 부착한 형태이다. 여기에서 관식의 위치에 대해 관좌우입식, 관전후입식 또는 관전쌍입식 등으로 추정하는 등 학자간의 견해차가 있다. 그러나 고분 출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견 당시 보존된 그대로의 유물 위치일 것이다. 무령왕의 관식은 출토 당시 한 쌍이 머리 부위에서 거의 포개진 상태로 발견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86)고 한다. 또한 금제관식 2매는 영락(瑩珞)이 달린 면을 전식(前飾)은 하면(下面)으로, 후식(後飾)은 상면(上面)으로 하여 거의 포개진 채 발견되었는데 문양의 윤곽면(輪廓綿)이 고르지 못하고 2매의 높이·폭의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1)고도 한다. 그렇다면 관식을 겹쳐서 관의 앞면에 꽃았거나 전후에 꽃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출토물의 배치상황을 고려하면 관전후입식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모자에 꽃았던 두 개의 관장식이 높이와 폭 등의 크기가 서로 다르며, 달개장식이 달린 부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포개진 채 출토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출토당시 위에 놓였던 크기가 큰 관장식이 관모의 뒷면에 배치되고 조금 작은 관장식이 관모의 앞면에 배치되었을 것이다(박선희, 2008).

군왕복의 소피대(素皮帶)는 교구(絞具)가 달

려 있는 피대(皮帶)로, 가죽으로 만든 소색(素色)의 피혁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혁대는 흔히 대대(太帶), 포백대(布帛帶)를 사용하는 중국과 달리 혁대를 사용하는 북방 유목문화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구(帶鉤)와 함께 착용되었던 것이다(유희경, 김문자, 1998). 오우리(烏韋履)는 흑색의 가죽신을 뜻하며, 무령왕릉출토 금동신발과 같은 형태의 신으로 여겨지며, 안에는 버선을 신었을 것이다.

2. 왕비복

문헌자료에는 왕비복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출토된 무령왕릉의 유물로 말미암아 관식이 왕의 것과 비슷하다는 면에서 고깔형의 관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왕비복으로 상의는 왕복과 유사한 저고리와 포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왕비가 착용한 하의는 아래에 속바지를 입으며, 내상(內裳) 혹은 표상(表裳)으로 치마를 입었을 것이다. 치마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北史』 卷94 百濟傳의

“百濟衣服與高麗略同”

“복장이 고구려와 동일하다.”

는 기록으로 미루어 왕비를 비롯한 여자들은 의례적인 경우, 바지 위에 치마를 착용했으리라 본다. 주변국에서 입었던 치마의 형태를 백제에서도 입었다고 보면 신분에 따라 고위층 여자는 주름이 많고 긴치마와 색동치마 등을 입었을 것이므로, 왕비복의 치마 또한 긴 주름치마 형태였을 것이다.

관식은 무령왕릉 출토유물로써 확인할 수 있는데, 금제관식이 왕의 관식과 유사하다는 면에서 그 형식은 다르더라도 군왕의 관과 형평 원칙에서 고깔형의 관모가 있었다는 것을 추상할 수 있다. 그 외의 장식으로는 다양한 장신구를 했을 것이다. 이는 백제가 고구려에 비해 한층 다양한 장신구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령왕릉 출토유물 중 왕비의 귀걸이를 보면, 백제 웅진시기 이식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가장 화려한 기법이 구사되어 있으며, 왕의 이식보다 더욱 백제적인 형태이다(이한상, 2009). 이 밖에 목

걸이, 팔찌를 착용하고 왕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리(飾履)를 신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관원복

백제의 관원복에 관해서는 『三國史記』 卷第24 百濟本紀 第2의 기록에서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靑.”

“6품 이상은 자주빛 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하고, 11품 이상은 붉은 옷을 입으며, 16품 이상은 푸른 옷을 입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관복이었던 공복제도를 의제(衣制)와 관제(冠制)로 나눈 것으로, 의제는 관위에 따라 자색·비색·청색으로 구별되고, 관제에 있어서 6품 이상의 고위 관인은 관에 은화관식을 꽃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문헌인 『周書』·『北史』·『隋書』는 6세기 후반기의 백제복식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료이다.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는 백제 공복제도에 대해 『周書』 列傳41 百濟·『北史』 卷94 百濟傳·『隋書』 卷81 列傳 東夷 百濟傳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官有十六品 左平五人一品 達率三十人二品 恩率三品 德率四品 扞率五品 柰率六品 六品已上冠飾銀華 將德七品紫帶 施德八品皂帶 固德九品赤帶 季德十品靑帶 對德十一品 文督十二品 皆黃帶 武督十三品 佐軍十四品 振武十五品 克虞十六品 皆白帶”

“관직에는 16품계가 있다. 즉 좌평이 5인인데 1품이고 달솔이 30인인데 2품이다. 은솔은 3품·덕솔은 4품·간솔은 5품·내솔은 6품이다. 이들 6품 이상은 관에 은화로 장식을 한다. 장덕은 7품인데 자대, 시덕은 8품인데 조대, 고덕은 5품인데 적대, 계덕은 10품인데 청대, 대덕은 11품·문독은 12품인데 다 황대를 한다. 무독은 13품·좌군은 14품·진무는 15품·극우는 16품인데 이들은 모두 백대를 한다.”

“百濟衣服與高麗略同 若朝拜·祭祀 其冠兩廂

加翅 戎事則不 柰率已上 冠飾銀花 將德紫帶 施德皂帶 固德赤帶 季德靑帶 對德·文督皆黃帶 自武督至克虞 皆白帶”

“백제의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조정의 배례와 제사 같은 때에는 그 관의 양옆에 날개를 붙이는데, 전쟁 때에는 붙이지 않았다. 나솔 이상은 관에 은꽃으로 장식하고, 장덕은 자주색 띠, 시덕은 검은 띠, 고덕은 붉은 띠, 계덕은 푸른 띠, 대덕·문독은 모두 누른 띠, 무독부터 극우까지는 모두 흰 띠를 둘렀다.”

“百濟自左平至將德 服紫帶 施德皂帶 固德赤帶 季德靑帶 對德以下 皆黃帶 自文督至克虞 皆白帶 冠制並同 唯柰率以上 飾以銀花”

“백제는 좌평부터 장덕까지는 자주색 띠를 두르고, 시덕은 검은 띠, 고덕은 붉은 띠, 계덕은 푸른 띠, 대덕 이하는 모두 누른 띠, 문독부터 극우까지는 모두 흰 띠를 둘렀다. 관의 제도는 모두 같은데, 다만 나솔 이상은 은꽃으로 장식하였다.”

그런데 『周書』·『北史』의 기록만으로는 7품만이 자대를 맨 것인지 그 이상이 자대를 맨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수서』에서는 1품에서 7품까지라고 그 범위를 확실히 기재하고 있다. 1품에서 6품까지는 은화의 관식이 있기 때문에 대의 색이 소홀히 생각되었고,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소략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색(帶色)은 『隋書』에 따라 1품에서 7품까지 모두 자색의 대를 매었음을 알 수 있다.

관식에 대해서는 『周書』·『北史』에는 관식 은화(冠飾銀華), 『隋書』에서는 식이은화(飾以銀花)라고 기록되어 있고, 관위에 따른 대색 바로 다음에 관제병동(冠制並同)이라고 적고 있어 대색과 동일한 색이 관색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고구려는 관에 꽃은 조우로 그 관위를 표시하였던 것에 반하여 백제는 관색과 대색이 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백제복식의 독자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실례이다(서미영, 2004).

이처럼 백제의 관원복은 문헌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품계별로 복색과 대색, 관의 형태

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백제사신도》 등의 회화자료에서 관원복의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관원복은 남자복식의 기본 구조인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포를 착용했을 것이다. 관원복은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는 지배 계급의 표지로서 포라는 것이 예를 갖추는 의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고리만이 아닌 겉옷으로 포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는 국제적인 조류 속에서도 백제 고유의 독자적인 양식이 발견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백제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역삼각형 관모이다. 역삼각형 관모의 재질면에서 라관과 유사하지만 형태 및 착용 방법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며, 이는 백제 고유의 관모 양식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4. 서민복

백제의 서민복 관련자료는 출토유물자료나 문헌자료가 현존하는 군왕복이나 관원복에 비해 전무한 편이지만, 『梁書』卷54 第夷傳와 『南史』列傳69 百濟에

“今言語服章 略與高麗同”

“言語服章 略與高麗同”

“지금에 와서는 말하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 대략 고구려의 의복과 같다.”

는 기록과 『舊唐書』卷199上 列傳 東夷 新羅傳에

“其風俗刑法衣服 與高麗百濟略同”

“신라의 의복이 고구려나 백제와 같다.”

는 기록에 의거하여 서민복 역시 삼국시대 의복에 관한 기재(記載)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삼국시대 복식의 기본형은 유, 고와 상, 포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관모, 대, 화 또는 이가 첨가된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는 북방 호복 계통의 의복으로 유목민이 말을 타거나 이동 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소매폭이 좁은 저고리와 품이 좁은 바지를 기본으로 한다(김은정, 임린,

2009).

서민여자복과 관련하여 『舊唐書』卷199上 列傳 東夷 百濟傳와 『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百濟에

“官人盡緋爲衣, 銀花飾冠. 庶人不得衣緋紫.”

“羣臣絳衣, 飾冠以銀繡. 禁民衣絳紫.”

“서민은 비색과 자색 옷을 입지 못한다.”

고 기록되어 있어 일반인의 복색에 대한 금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宣和奉使高麗圖經』券20 婦人에

“臣聞三韓衣服之制 不聞染色…舊俗女子之服白苧黃裳…”

“삼한의 여자가 무늬 없는 저(苧)로 만든 황색 치마를 착용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염색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고 함으로써 직물재료인 저 자체가 황색을 띠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꽃무늬를 금했던 것으로 보아 일부에서는 꽃무늬 의복을 입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귀족에서 하층민까지 구분 없이 같은 치마를 입었다고 하므로, 꽃무늬 직물은 서민여자의 치마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唯以花文爲禁…上自公族貴家 下及民庶妻妾 一概無辨”)되어 있어 복식의 색상에 관한 내용은 『舊唐書』와 『新唐書』, 『宣和奉使高麗圖經』을 통해 알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치마와 경주 황남동에서 출토된 여자 토우가 입은 주름 잡힌 치마를 통해서 복식의 형태를 살펴보면 치마의 형태가 동일하다. 이는 신라의 토착민들이 고조선 시대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의 복식을 그대로 계승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을 통해 백제의 서민복은 기본적으로 유, 고와 상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식의 색은 비색과 자색이 금지되었으므로 백색 또는 소색이었을 것이다. 이에 서민남자복은 소매통이 좁은 저고리에 품이 좁은 바지로 구성되어 있고, 바지부리는 여며 입었을 것이다. 서민여자복 역시 소매통이 좁은 저고리에 적은 폭의 치마를 입고, 치마 안에 바지부리를 여민 바지를 입었

〈표 1〉 백제시대 복식 구조와 형태

복식 구조		복식 용어	형태	
상의	저고리	複衫	소매통	착수형(窄袖形), 대수형(大袖形)
			깃	직령(直領)
			장식선	깃, 도린, 수구
			여밈	좌입(左衽), 합입(合衽)에 대(帶)
	포	紫大袖袍, 布袍 衣布袍, 衣似袍 大袖紫袍, 大袞紫袍	소매통	통수형(筒袖形), 대수형(大袖形)
			깃	직령(直領)
			장식선	깃, 수구, 밑단
			여밈	우입(右衽), 합입(合衽)에 대(帶)
하의	바지	犢鼻褌 袴曰褌	바지통	세고(細袴), 광고(廣袴)
			장식선을 댄 넓은 바지, 밑단을 여민 바지	
	치마	下裙, 下裳	바닥까지 길고 주름이 많은 풍성한 형태의 치마	
장신구		관모와 관식(금동관, 은제관식, 금동관식) 수식(대금구, 금동제 식리, 귀걸이, 목걸이, 팔찌, 비녀와 동곳)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백제시대 복식 관련자료를 토대로 백제복식의 구조와 형태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III. 축제에서 재현된 백제복식의 재현 양상

1. 한성백제문화제의 역사문화거리행렬 복식 분석

한성백제문화제는 육상과 해상을 아울러 강한 국력을 과시하며 우수한 문화를 국제적으로 전파한 한성백제의 융성기를 조망하고자 하는 축제이다. 역사문화거리행렬은 한성백제문화제의 행사 중 주요 프로그램에 속하며, 2008년 9월 2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행렬구간은 올림픽공원 사거리에서 평화의 문 광장에 이르는 위례성길이었으며, 총 1.5km에

이른다. 이러한 역사문화거리행렬은 한성백제문화제의 하이라이트로 한성백제시대 최대의 전성기를 누린 근초고왕의 개신행렬을 퍼레이드로 구성한 것이다(한성백제문화제 브로셔, 2008). 한성백제문화제의 역사문화거리행렬은 2014년까지 매년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축제복식의 형태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식으로 착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역사문화거리행렬의 축제복식은 주최 측인 송파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송파구청에서는 매년 공연 행사대행사를 모집하여 입찰공고에서 낙찰된 공연 대행업체에서 역사문화거리행렬을 총괄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위한 축제복식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 용역을 받은 이벤트 업체에서는 전통복식 대여업체에서 백제복식을 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전통복식 대여업체 한 곳에서 수량이 부족한 이유로 백제복식을 모두 대여하지 못하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전통복식 대여업체 여러 곳에서 백제복식과 소품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었다. 역사문화거리행렬에서 보이는 신분별 복식은 군왕복(온

조복), 왕비복(소서노복), 관원복, 장군복, 병사복, 호위대복, 수레꾼복, 취타복, 기수복, 궁녀복, 서민복, 풍물패복에 이르기까지 총 12종류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암왕인문화축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축제복식인 군왕복, 왕비복, 관원복, 서민복으로 선별하여 조사·정리하였다.

1) 군왕복

한성백제문화제의 역사문화거리행렬에서 온조왕 역할의 축제관계자가 착용한 군왕복의 포는 홍색 양단을 소재로 하여 직령포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포는 겹으로 구성되었고, 안감은 자색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다. 총길이는 무릎을 덮는 길이로, 깃과 도련 둘레 및 소매부리에 흑색 소재로 가선을 둘렀고, 가선에는 모두 금사레이스를 부착해 문양이 자수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허리에는 가선 소재와 같은 대를 하고 있으며, 뒤에서 벨크로(velcro)를 부착하여 여미게 되어 있다. 두식으로 자색 건을 쓰고 있으며, 신은 흑색과 백색의 합성피혁 소재로 된 목화를 신은 모습이다.

2) 왕비복

소서노 역할의 축제관계자가 착용한 포는 지백색(紙白色)의 양단을 소재로 하여 직령포 형태로 제작되었고, 깃과 소매 전체에 꽃문양이 금사로 원단에 직조되어 있다. 포는 겹으로 구성되었고, 안감은 백색으로 되어 있다. 총길이는 무릎을 덮는 길이로, 깃과 도련 둘레 및 소매부리에 분홍색 양단 소재로 가선을 둘렀다. 포 안에는 백색 양단으로 제작된 저고리를 착용하고 가슴부위에 홍색 주름치마를 둘러 입은 모습이다. 장신구로 주색(朱色) 옥소재의 이식(耳飾)만을 하고 있다.

3) 관원복

관원은 행렬에서 역할에 따른 정확한 호칭이 없으므로 관원1, 관원2, 관원3으로 분류하였다. 관원1의 포는 적토색(赤土色) 폴리에스테르를 소재로 하여 단령포 형태로 깃과 소매부리에 흑

색 소재로 가선을 둘렀고, 도련 둘레 및 밑단은 길과 같은 색상으로 가선을 댄 형태이다. 관모로 흑색 복두 쓰고 있으며, 흑색 합성피혁 소재의 목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다. 관원2는 백색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된 바지와 저고리위에 포를 입고 있으며, 관모는 흑색 건을 쓰고 있고, 신은 흑색 합성피혁 소재의 목화이며, 목화가 낡아서 밑창을 고무줄로 발등에 묶어서 신은 모습이다. 관원3은 백색의 바지와 저고리를 착용하였고, 그 위에 적색 폴리에스테르를 소재로 하여 단령포 형태로 깃과 소매부리에 흑색 소재로 가선을 두른 포를 착용하였다. 허리에는 홍람색(紅藍色)의 대를 허리 뒤에서 나비매듭을 지어 묶었다. 관모는 흑색 복두를 쓰고, 흑색 합성피혁 소재의 목화를 신고 있다.

4) 서민복

서민남1은 담청색(淡靑色)의 저고리에 청현색(靑玄色)의 바지를 착용하였다. 허벅지까지 오는 길이의 저고리는 면소재로 깃과 도련 및 수구에 숙람색(熟藍色)의 같은 소재로 가선을 대었다. 허리에는 훈색(纁色) 면소재의 대를 매어 뒤에서 나비모양으로 매듭지었다. 건은 머리둘레 부분에 저고리의 가선 색상과 같은 소재를 덧대어 뒷목에서 묶어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신발은 흑색 컨버스 소재의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있다.

서민남2는 자색의 면소재로 제작한 저고리와 청현색의 바지를 착용하였다. 저고리의 길이는 둔부를 덮는 길이로, 깃과 도련 및 수구에 자황색(紫黃色)의 동일한 소재로 가선을 대었다. 허리에 춘유록색(春柳綠色) 면소재의 건을 썼으며, 건의 머리둘레 부분에는 흑청색(黑靑色)의 가선을 둘러 뒷목에서 묶어 고정하도록 하였다.

서민녀 역할의 축제관계자 복식은 허벅지 길이의 긴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되어 있다. 저고리는 녹색의 면소재로 제작되었고, 깃과 도련, 수구에 적황색(赤黃色)의 가선을 둘렀다. 적자색 면소재로 된 치마는 발등이 살짝 보일 정도의 길이로, 폭이 좁고 치맛단에 적색 가선을 댄 형태이다. 머리에 관모는 착용하지 않았으나 서민녀 역할의 참가자 전원이 머리를 뒤로 묶어 쪽진 형태의 머리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표 2> 역사문화거리행렬의 신분별 복식 재현 양상

군왕복과 왕비복 사진			
신분	온조왕	소서노	
복식품목	포, 바지, 저고리, 대, 건, 목화	포, 치마, 저고리, 이식	
형태	직령포		
색상	홍색, 담자색, 자색	지백색, 분홍색, 홍색	
소재	양단		
관원복 사진			
신분	관원1	관원2	관원3
복식품목	포, 바지, 저고리, 대, 복두, 목화	포, 바지, 저고리, 대, 건, 목화	포, 바지, 저고리, 대, 복두, 목화
형태	단령포	직령포	단령포
색상	적토색	자색	적색
소재	폴리에스테르		
서민복 사진			
신분	서민남1	서민남2	서민녀
복식품목	바지, 저고리, 대, 건, 운동화		치마, 저고리, 대, 운동화
형태	직령저고리, 바지		직령저고리, 치마
색상	담청색, 청현색, 속랍색	다자색, 청현색, 춘유록색	녹색, 적자색, 적황색
소재	폴리에스테르, 면		

일정한 발양으로 표현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신발은 서민역할을 맡은 참가자 모두 흑색 컨버스 소재의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역사문화거리행렬의 신분별 복식 재현 양상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2. 영암왕인문화축제의 개막행차 왕인맞이 복식 분석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왕인의 정신과 문화전파를 기념하는 행사로, 역사적 인물을 매개체로 활용한 지역축제이며, 인물재현을 통한 국내 전통문화축제 중 유일하게 일본인 참배객이 참여하는 축제이다. 개막행차 왕인맞이는 축제를 상징하는 주제와 슬로건이 새겨진 오색 깃발을 든 깃발꾼이 앞서고 2007년 영암왕인문화축제 특별프로젝트로 제작된 ‘왕인유산 천인천자문’ 완책본을 실은 가마행렬을 선두로 오경박사, 백제문양깃발단, 신료행렬 등으로 구성된 왕인행렬단이 ‘왕인의 빛’을 맞이하고 ‘문화의 길’을 여는 왕인테마 퍼레이드이다. 2008년 4월 5일 오후 1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행렬구간은 탄생지부터 논어광장, 영월관, 주무대광장에 이른다(영암왕인문화축제 브로셔, 2008). 영암왕인문화축제의 개막행차 왕인맞이는 2014년까지 매년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축제복식의 형태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식으로 착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막행차 왕인맞이의 축제복식은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주최 측인 영암군청 소속의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암군청에서는 복식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개막행차 왕인맞이의 축제복식 대부분을 전통복식 대여업체에서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고, 소량의 축제복식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 품목이 서민복식으로 한정적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민복식은 2003년에 구입하였고, 2008년 개막행차 왕인맞이의 축제복식은 ㈜코디아트에서 대여한 것이다. 개막행차 왕인맞이에서 보이는 신분별 복식은 군왕복, 왕비복, 관원복, 왕인복, 장군복, 병사복, 기수복, 서민복, 풍물패복에 이르기까지

총 9종류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성백제문화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축제복식인 군왕복, 왕비복, 관원복, 서민복으로 선별하여 조사정리하였다.

1) 군왕복

영암왕인문화축제의 개막행차 왕인맞이에서 보이는 군왕복식의 포는 황색에 꽃문양이 직조된 양단을 소재로 하여 직령포 형태로 제작되었다. 총길이는 발등까지 오는 길이로, 깃과 도련둘레 및 소매부리에 흑색 소재로 넓게 가선을 둘렀고, 가선에는 모두 금사로 구름 문양을 자수한 형태이다. 대는 따로 두르지 않고 어깨에 걸쳐 입은 모습이다. 두식으로 흑색 오라관을 썼으며, 오라관의 앞과 양옆 금제관식 3개를 부착하였다. 장신구로 이식과 경식(頸飾), 과대(鈔帶)와 요패(腰佩)를 착용하고 있는데 경식과 요패는 진주와 금구슬을 엮은 형태이다. 이식은 심엽형으로 귀에 걸고 있으며, 과대는 금색의 원형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신은 금사로 발등에 문양이 수놓인 다자색(茶紫色) 목화를 신고 있다.

2) 왕비복

왕비 역할의 축제관계자가 착용한 왕비복식은 군청색 양단을 소재로 한 직령포로, 깃과 도련둘레 및 소매부리에는 흑색 가선을 둘렀고, 가선에는 금사로 구름 문양이 자수되어 있다. 허리에는 대는 두르지 않은 채 앞섶을 열고 어깨에 포를 걸친 모습이다. 두식으로 인동당초문을 투조하여 만든 금제관식이 앞과 양옆으로 달린 흑색 오라관을 쓰고 있다. 이식으로 곡옥과 금구슬이 달린 화려한 수하식 귀걸이를 하고 있으며, 경식은 군왕의 경식과 동일한 형태이다. 신은 금사로 발등에 문양이 수놓인 목화로 군왕의 신과 동일하다.

3) 관원복

왕인 역할의 축제관계자가 착용한 관원복의

포는 지황색(芝黃色) 폴리에스테르를 소재로 하여 직령포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길과 소매 전체에 백색과 적황색의 꽃이 자수되어 있다. 포는 겹으로 구성되었고, 안감은 홍색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다. 총길이는 무릎을 덮는 길이로, 깃과 도련 둘레 및 소매부리에 적색 공단 소재로 가선을 들렀고, 가선에는 금사로 인동당초문이나 수 놓여져 있다. 대 없이 어깨에 걸쳐 입은 모습이며, 포 안에는 백색 양단으로 제작된 바지와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관모는 공단으로 제작한 흑색 건을 쓰고 있으며, 머리 둘레에 다자색의 선을 대어 뒤에서 매듭지어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신은 흑색 리의 형태로, 발등에 금사로 문양이 수 놓여져 있다.

관원1은 꽃문양이 직문된 감색(紺色) 양단 소재의 직령포를 착용하고 있으며, 안감은 같은 색상의 적색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다. 총길이는 발목까지 오는 길이로, 깃과 도련 둘레 및 소매 부리에 흑색 가선을 들렀는데 포의 양옆에 깊은 트임이 있다. 허리에는 흑색 양단 소재의 대를 둘러 뒤에서 매듭지었고, 포 안에는 설백색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된 바지를 착용하였으며, 상의는 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다. 관모는 왕인의 건과 동일하며, 신은 흑색 스웨이드 소재의 목화 형태이다.

관원2가 착용한 관원복의 포는 감색 양단을 소재로 하여 직령포 형태로 제작되었고, 겹으로 구성되었으며 안감도 감색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다. 포는 발등까지 오는 길이로, 포의 깃과 도련 둘레 및 소매부리에 설백색 소재로 가선을 들렀으며, 걸썩을 여미지 않고 걸쳐 입은 모습이다. 포 안에 감색으로 가선을 댄 설백색 바지와 저고리를 착용하였다. 관모는 설백색 양단으로 제작된 건을 썼는데, 머리둘레에 금사로 자수를 놓은 감색 선을 대서 머리 뒤에서 매듭지어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신은 흑색 스웨이드 소재의 목화를 신고 있다.

4) 서민복

서민남1은 무릎까지 오는 길이의 저고리에 바지를 착용하였다. 저고리와 바지는 지백색의 면소재로 홉겹 제작되었고, 저고리의 깃과 도련

및 수구에 유백색의 같은 소재로 가선을 대었으며, 저고리의 양쪽 옆선에는 10cm 가량의 트임이 되어 있다. 소매는 축계관계자의 신분이기 때문이기에 저고리 안에는 교복셔츠를 입은 모습이며, 허리에는 유백색 면소재의 대를 매어 허리 옆에서 나비모양으로 매듭지었다. 머리에는 지백색 면소재의 건을 썼고, 건의 머리둘레 부분에 유백색의 선을 둘러 목뒤에서 묶도록 되어 있다. 신발은 백색의 일반운동화를 신고 있다.

서민남2는 청색의 면소재로 제작한 저고리와 호박색(琥珀色) 바지를 착용하였다. 저고리의 길이는 무릎까지 오는 길이로, 깃과 도련 및 수구에 호박색의 같은 소재로 가선이 둘러져 있고, 허리에 가선과 같은 색상 소재로 대를 맨 모습이다. 바지는 부리부분에 호박색 바탕에 청색 소재로 가선을 들렀으며, 저고리와 바지 모두 홉겹으로 제작되었다. 저고리 안에 넥타이를 맨 교복셔츠 차림이고, 머리에는 청색 바탕에 호박색 선이 둘러진 건을 쓰고 있다. 신발은 흑색의 일반운동화를 신고 있다.

서민녀 역할의 축계관계자 복식은 둔부를 덮는 길이의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되어 있다. 저고리는 혼색의 면소재로 제작되었고, 깃과 도련, 수구에 연두색의 가선을 들렀으며, 양 옆선에 트임이 있는 형태이다. 저고리 안에는 넥타이를 맨 교복셔츠를 입고 있으며, 허리에 연두색 대를 둘러 뒤에서 허리 옆에서 나비매듭을 지어 걸썩을 여민 모습이다. 연두색 면소재로 된 치마는 발등을 덮을 정도의 길이로, 폭이 좁고 치맛단에 혼색 가선을 댄 형태이다. 신발은 참가자 본인의 백색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개막행차 왕인맞이의 신분별 복식 재현 양상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IV. 백제행렬복식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

한성백제문화제의 역사문화거리행렬과 영암 왕인문화축제의 개막행차 왕인맞이에서 착용한 신분별 백제행렬복식을 백제복식 원형과 비교

<표 3> 개막행차 왕인맞이의 신분별 복식 재현 양상

군왕복과 왕비복 사진			
신분	군왕	왕비	
복식품목	포, 바지, 저고리, 오라관, 금제관식, 폐슬, 이식, 경식, 과대, 요패, 목화	포, 치마, 저고리, 대, 오라관, 금제관식, 이식, 경식, 목화	
형태	직령포		
색상	황색·홍색·흑색	군청색·지백색·유백색	
소재	양단		
관원복 사진			
신분	왕인	관원1	관원2
복식품목	포, 바지, 저고리, 건, 리	포, 바지, 대, 건, 목화	포, 바지, 저고리, 건, 목화
형태	직령포		
색상	지황색·백색	적색·설백색	감색·설백색
소재	폴리에스테르, 공단	양단, 폴리에스테르	
서민복 사진			
신분	서민남1	서민남2	서민녀
복식품목	바지, 저고리, 대, 건, 운동화		치마, 저고리, 대, 운동화
형태	직령저고리, 바지		직령저고리, 치마
색상	지백색·유백색	청색·호박색	훈색·연두색
소재	면		

해보면 복식품목의 구성, 소재, 색상, 형태, 착장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축제 행렬에서 나타난 군왕 복식은 복식의 구성 품목이 포, 바지, 저고리, 목화 외에는 모두 상이하다. 관모 역시 문헌자료와 유물자료로 유추 가능한 관전후입식의 금화식 오라관이 아닌 서민의 관모와 동일한 건을 쓰거나 관전좌우입식의 오라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개막행차 왕인맞이 행렬에서 군왕이 허리에 착용한 폐술(蔽膝)은 면복(冕服)의 착용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복식품목이다. 소재와 색상의 경우, 자색이 아닌 홍색, 황색, 흑색의 양단을 사용하여 제작한 포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는 군왕의 복식이므로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백제복식의 원형과 일치하지 않는 색상과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왕 복식의 형태는 포의 품이나 길이, 장신구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백제복식 문헌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수(大袖)가 아닌 통수형의 소매, 관원복보다 더 짧은 포의 길이, 왕비의 장신구와 동일한 형태의 이식, 경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착장 방식의 경우, 저고리와 바지는 기본으로 착용하고 포를 덧입은 방식인데 포를 우임으로 여며 대를 매거나, 대를 매지 않고 저고리 위에 걸쳐 입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제 행렬에서 나타난 왕비 복식의 소재와 색상의 경우, 축제에서 보여지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왕비복식의 원형과 일치하지 않는 색상과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군왕의 복식이 대자수포였으므로 왕비의 포 역시 자색이었을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현대 축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왕비의 지백색, 군청색 포는 고중에 따른 시정이 요구된다. 또한 이식, 경식과 같은 장신구의 형태에 있어 출토유물과 유사한 형태가 아닌 현대적인 소재와 디자인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다. 왕비의 관모 역시 관전후입식의 금화식 오라관이 아닌 관전좌우입식의 오라관을 쓰거나 관모 자체를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착장방식의 경우, 저고리와 치마는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포를 덧입은 방식인데 허리에 대를 매지 않고 저고리 위에 걸쳐 입고 있다. 또한 저고리를 좌임으로 여며 그 위에 가슴선까지 올라오는 치마를 착용한 방식이 보이는데, 이는 통

일신라시대 복식 착장법과 혼동한 것으로 생각되며 행렬에서 왕과 함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왕비의 복식이므로 올바른 고증으로 재현해야 할 것이다.

축제에서 착용한 관원 복식은 각 축제마다 복식의 구성이 바지, 저고리, 포로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관모나 포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관원이 행렬에 등장하게 되므로 관원복 또한 다양하게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관원복의 소재는 폴리에스테르와 합성사가 섞인 공단, 양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색상에 있어서도 문헌자료에서 관원복의 색상이 자색, 비색, 청색, 녹색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실제 축제 행렬에서는 적색, 지황색, 감색 등의 다양한 색상의 포를 혼용하여 착용하고 있다. 축제복식에서 관원 복식의 형태는 직령착수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단령포의 형태도 확인되었다. 단령은 중국 당나라에서 도입되어 통일신라대에 유행하던 둥근 깃의 포로, 백제행렬에서 사용하기에 시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복식 형태이다. 착장방식의 경우, 재현복식에서 관원복 포는 좌임이나 우임으로 여며 대를 매거나, 대를 매지 않고 저고리 위에 걸쳐 입은 방식 등이 나타나고 있다.

축제 행렬에서 사용된 서민 복식의 소재는 경제적·실용적 측면 때문에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나 면으로 제작한 복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헌에서 저(苧), 마(麻)와 같은 인피섬유에 대한 기록이 있고, 무령왕릉에서는 다양한 마직물의 잔편과 함께 저사(苧絲)도 확인되어(국립공주박물관, 2005), 저마를 포함한 비교적 다양한 마직물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서민남녀 복식의 소재 재현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색상에 있어서도 재현복식에서는 다양한 색상들로 유사배색 또는 대비배색을 사용함으로써 화려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민 복식의 형태는 직령깃과 착수, 좁은 바지통과 치마폭이라는 점에서 백제복식 원형과 대략 유사하나 저고리의 길이와 바지 밑단 여밈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저고리의 길이는 둔부를 덮을 정도의 길이로, 바지 밑단은 여며 입는 형태가 적당하나 재현복식에서는 무릎

까지 오는 길이의 저고리와 개구고의 바지 형태가 착용되고 있어 시정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서민남녀 복식은 재현복식 중 착장 방식이 가장 문제시되는 복식이다. 대부분의 서민 역할 축제관계자가 저고리 안에 티셔츠나 교복과 같은 일반복식을 착용하고 구두 또는 운동화를 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고리에 대를 바르게 매지 않아 겹섶이 벌어지는 등의 착장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축제 행렬에서 서민역할이 행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따라서 축제 행렬의 인원확충을 위해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서민 역할로 참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축제 행렬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과 전통복식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복식 착장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축제에 나타난 재현복식과 백제시대 원형복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군왕복식, 왕비 복식, 관원 복식, 서민 복식 모두 복식 품목의 구성, 색상, 형태, 착장방식에서 백제복식 원형과 차이가 있었다.

복식 품목 면에서 군왕 복식의 경우, 적절한 복식 품목이 아닌 폐슬 등을 추가하여 구성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대적 배경과 상관없는 복식 품목을 착용하는 것은 축제관람객에게 시대적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므로 고증에 따른 복식 품목으로 재현복식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색상의 고증 문제는 문헌 기록과 유물자료에서 복식 종류에 따른 원형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축제복식을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실존했던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는 행렬 복식으로 다양한 색상의 재현복식을 착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관원 복식은 품계와 관위에 따른 복색과 대색이 기록된 공복제도 관련 문헌자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복식 색상에 대입하여 고증해야 할 것이다.

형태의 문제점은 겹에 착용하는 포의 길이와 품의 여유, 장신구의 복원 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군왕과 왕비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계급이므로 다른 신분의 복식과 길이와 품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원복, 서

민복을 불문하고 유사한 형태의 포가 무분별하게 착용되고 있었다. 또한 장신구는 출토유물을 복원하여 재현한 장신구가 아닌 현대적 디자인의 장신구, 또는 전혀 고증되지 않은 형태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착장방식의 문제는 주로 서민남녀 복식에서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전통복식을 축제복식으로 착용하는 이상 전통복식 안에 착용한 축제관계자의 복식이 겹으로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축제복식을 착용하는 축제관계자가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통복식 착장법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되며 축제 행렬 관계자의 복식 착장법 전달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재현복식에 사용된 부적절한 소재에 관한 문제이다. 축제복식에서 재현된 백제복식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섬유에 의해 제작되었다. 합성섬유에 의한 축제복식의 제작은 착용자의 활동과 관리의 편리함에 연유하였으며, 경제적 이유 또한 큰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축제에서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합성섬유는 전통복식이 갖는 고유의 색상을 재현해 내지 못하였다. 전통복식의 기본소재인 천연섬유가 갖고 있는 고급스러움과 고상함은 합성섬유의 자극적인 색상과 배색에서 오는 경박함으로 인해 품위를 표현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서 재현된 전통복식 제작방법의 한계에 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축제복식의 제작은 획일화되고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통복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축제복식의 일회성과 경제성에만 급급한 제작방식은 축제복식의 저급화를 가져왔다. 전통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복식의 미는 무시되고, 술기, 시접방향 하나하나에서 섬세하게 드러나는 전통복식의 특성은 간과되었다. 이는 축제복식을 다량으로 한꺼번에 제작함으로써 편리성과 이윤만을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백제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신분별 복식은 제작방식에 있어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가장 겹에 착용하는 포와 저고리의 경우 안감 없이 홉겹으로 제작한 경우가 많아 축제관계자가 복식 착용 시 안에 입은 복식 위에 포나 저고리를

껴입기 때문에 전통복식의 실루엣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식 치수의 일관화로 모든 축제복식을 동일한 치수로 제작하고 있어 행렬에서 같은 신분의 역할임에도 축제관계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복식 착용 시 품과 길이가 다르게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상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백제행렬복식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축제의 행렬에 있어 등장하는 인물의 순서는 군왕-왕비-관원-서민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등장하는 인물의 인원수 역시 군왕과 왕비-관원-서민의 순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군왕과 왕비는 다양한 신분계급 중에서도 단 한명씩 행렬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는 역할이므로 군왕과 왕비의 복식은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역사문화거리행렬과 개막행차 왕인맞이에서 착용되고 있는 백제복식은 모두 행사대행사에서 선정한 이벤트 업체가 전통복식 업체에서 대여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축제복식을 이벤트 업체에서 담당하는 축제행사는 복식의 구성이나 착용상태 및 관리가 다른 축제보다 더욱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축제복식을 제대로 고증하고 제작하여 다음 축제에서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하고, 백제시대가 갖는 역사성, 행렬복식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제작방식이 부른 필연적 결과이며, 축제의 취지와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백제복식의 재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문헌자료를 근거로 한 군왕 복식과 왕비 복식은 자색의 사직물(紗織物)을 사용하여 겹으로 제작하며, 가선이 넓게 부착된 대수직령포에 금제관식이 앞뒤로 달린 오라관을 쓰도록 한다. 포 안에 군왕은 청색의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왕비는 청색의 주름치마와 저고리를 착용한다. 이때 포는 앞여밈이 벌어져 옷매무새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안쪽에 벨크로를 달아 고정해주고, 포 밑단 안쪽에 스냅단추를 부착하여 행렬 시 포 자락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포의 옆솔기 허리선에 실고리를 달아 대를 통과시켜 줌으로써 대와 과대가 흘러내림 없이 적절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게 한다. 백제시대 출토유물에

서 과대와 요패가 확인되는 바, 포 위에 백색 가죽띠(소피대)를 하고 과대와 요패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신구로 군왕은 귀에 거는 형태의 이식, 왕비는 이식에 경식과 완식을 추가한다.

관원 복식은 문헌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품계별로 복색과 대색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관원 역할의 등장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자색, 비색, 청색, 녹색의 포를 착용하되, 군왕의 포보다 품과 길이, 소매너비 등을 작게 해서 복식 규모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헌자료에서 대의 색상과 출토유물에서 은제 과대와 요패를 착용해야 한다. 관원복은 품관에 따라 행렬에서 다수의 축제관계자가 착용하는 복식이므로 복식 제작에 있어 사이즈 교정이 가능한 기법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포의 걸감과 안감의 밑단을 분리시켜 착용자의 키에 맞춰 길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서민 복식은 백제복식 원형대로 하자면 저 또는 마를 사용해야 하지만, 모시나 마직물을 축제복식으로 제작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대체 가능 직물인 린넨(linen)을 사용하여 복식을 제작한다. 서민 복식은 가장 다수의 인원이 착용하게 되는 복식이므로 사이즈 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착용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고리와 바지, 치마 모두 겹으로 제작하여 안에 다른 옷을 덧입는 경우를 미리 방지한다. 저고리를 착용했을 때 깃 여밈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쪽에 벨크로를 부착하며, 대의 여밈 역시 미리 매듭 모양을 만들어 벨크로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백제행렬복식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제안한 축제복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V. 결론

역사적 재현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축제에서 활용 가능한 전통복식을 정확히 고증하여 재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축제행렬의 배경과 의미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다

<표 4> 축제에서 재현된 행렬복식 현황과 축제복식 제안

분류		형태		색상	소재	
군왕복식	행렬복식 현황	직령포, 바지, 저고리 / 폐슬	가선, 우임에 대로 여밈 / 여밈 없이 포를 걸침	겹	홍색 / 황색	양단, 폴리에스테르
		대, 긴, 목화 / 오라관, 금제관식 이식, 경식, 과대, 요패	벨크로 처리 / 관전좌우입식	-	자색, 흑색	합성피혁 / 진주, 구슬
	축제복식 제안	대수직령포, 바지 저고리	가선, 우임에 대로 여밈 깃 안쪽 벨크로 처리 여밈 안쪽 스냅단추 부착	겹	자색, 청색	용문양을 직조한 사직물(紗織物)
		백색가죽띠, 오라관, 금제관식, 과대, 요패, 리, 이식	관전후입식, 걸이형 이식	-	흑색	피혁, 금도금 구슬
왕비복식	행렬복식 현황	직령포, 치마, 저고리 / 폐슬	가선, 합임, 저고리 위에 치마 착용 / 여밈 없이 포를 걸침	겹	지백색, 홍색 / 군청색	양단
		이식 / 오라관, 금제관식 이식, 경식, 목화	수하식 귀걸이 관전좌우입식	-	주색	옥 / 금구슬
	축제복식 제안	대수직령포, 주름치마 저고리, 속바지	가선, 우임에 대로 여밈 깃 안쪽 벨크로 처리 여밈 안쪽 스냅단추 부착	겹	자색, 청색	쌍조금원문, 봉황문양을 직조한 사직물
		백색가죽띠, 오라관, 금제관식, 과대, 요패, 리, 이식, 경식, 완식	관전후입식, 걸이형 이식	-	흑색	피혁, 금도금 구슬
관원복식	행렬복식 현황	단령포, 직령포, 바지 저고리	가선, 우임에 대로 여밈 / 착수, 여밈 없음	겹/ 홀	적도색, 자색, 적색 / 지황색, 적색, 감색	폴리에스테르 / 양단
		대, 복두, 긴, 목화 / 리	나비매듭 / 매듭으로 건 고정	-	흑색	합성피혁 / 스웨이드
	축제복식 제안	대수직령포, 바지 저고리	가선, 우임에 대로 여밈 깃 안쪽 벨크로 처리 여밈 안쪽 스냅단추 부착	겹	자색, 비색 청색, 녹색	인동당초문, 꽃문양을 직조한 사직물
		대, 역삼각형 관모, 은제관식, 과대, 신	대 여밈 벨크로 처리	-	자색, 조색, 적색 청색, 황색, 백색	피혁, 은도금 구슬
서민복식	행렬복식 현황	바지, 저고리, 치마	가선, 우임에 대로 여밈 / 허리 옆에 나비매듭	홀	담청색, 다자색, 녹색 / 지백색, 청색, 훈색	폴리에스테르, 면
		대, 긴, 운동화	저고리 안에 티셔츠착용 / 교복셔츠 착용	-	흑색	퀵비스
	축제복식 제안	바지, 저고리, 치마	가선, 우임에 대로 여밈 깃 안쪽 벨크로 처리	겹	소색, 백색	40수 린넨
		대, 긴, 버선, 짚신	대 여밈 벨크로 처리	-	흑색	짚

각적인 각도에서 시대복식을 고찰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축제복식의 고증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가치적 자료의 재현으로 실물복식이 부재하는 시대의상의 자료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이태옥 외, 2005). 즉 축제복식은 축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배역이나 성격을 축제관람객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축제관계자가 착용하는 복식 전반을 총칭하며, 다른 축제요소들과의 조화를 통해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축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축제복식은 복식 품목의 구성면에서 군왕복에 폐슬을 추가하거나 관원복으로 단령포를 착용하는 등 시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복식품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축제관람객에게 시대적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므로 고증에 따른 복식품목으로 재현복식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재의 경우, 축제복식은 대부분 실용적·경제적 측면에서 폴리에스테르나 합성사가 섞인 공단, 양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백제관련 문헌자료에 직물 용어가 확인되므로 각 신분별 복식에 적합한 소재로 재현해야 할 것이다.

색상의 고증 문제는 특히 관원 복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양한 색상의 포와 대를 착용하고 있어 관원의 품계에 따른 복색과 대색으로 선정하여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식 형태의 문제점은 겉에 착용하는 포의 길이와 품의 여유, 장신구의 복원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착장방식의 경우, 저고리와 바지는 기본으로 착장하고 포를 덧입은 방식인데 포의 착장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렬복식에서 군왕복 포는 우입으로 여며 대를 매거나, 대를 매지 않고 저고리 위에 걸쳐 입은 방식 등이 있지만, 출토유물에서 과대와 요패가 확인되는바 포위에 소피대를 하고 과대와 요패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착장방식의 문제는 주로 서민 복식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축제복식을 착용하는 축제관계자가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통복식 착장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으로 파악되며 축제행렬 담당책임자의 복식 착장법 전달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과 같이 축제복식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

점에도 불구하고, 백제복식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과 개선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축제복식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백제라는 시대적 설정이 명확하고, 백제시대 인물들과 백제문화의 전파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축제복식에 대한 접근과 시도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제복식이 해당 축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행정적 역량강화를 통한 학술적 뒷받침과 지원을 보장할 때 백제복식의 축제복식으로서의 위상이 안정적 기반을 이룰 것으로 본다. 또한 지금까지 보여줬던 축제복식의 즉흥적이고 전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형태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축제복식은 백제시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물을 소재로 삼고 있어 백제행렬의 다변화와 생동감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 개발, 그에 따른 축제복식의 고증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현재까지 이들 축제의 행렬에서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전통복식이 축제복식으로 착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축제의 행사 시기와 차이가 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처럼 매년 동일한 축제복식을 착용하는 현상은 축제복식을 제작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외적요건과 생산자 및 업체, 축제 주최측의 전통복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없이 축제복식을 제작해온 총체적 결과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립공주박물관. (2005). *무령왕릉-출토유물분석(1)*. 공주: 국립공주박물관.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고고직물II 백제의 직물*. 부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국립중앙박물관. (1986). *명품도감*. 서울: 삼화출판사.
- 김은정, 임린. (2009). *역사속의 우리옷 변천사*.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박선희. (2008). 백제 금관의 유형 추론과 관모장식. *비교민속학*, 35, 411-443.
- 서미영. (2006). 백제 공복제도에 관한 연구. *복식*, 5(8), 60-73.
- 안인희. (2014). 조선시대 혼인의례와 혼례복에 관한 스토리텔링 원천자료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 16(1), 139-151.
- 영암왕인문화축제 브로셔. (2008).
- 유희경. (1991). 백제의 관식고. *복식*, 17, 21-27.
-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이태옥, 윤현진, 조우현. (2005). 악학궤범의 처용무복식 고증 제작. *한국의상디자인학회*, 7(1), 1-13.
- 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울: 서경문화사.
- 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1). *백제 무령왕릉*. 공주: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한성백제문화제 브로셔. (2008).
- 『三國史記』
- 『舊唐書』
- 『新唐書』
- 『周書』
- 『北史』
- 『南史』
- 『隋書』
- 『梁書』
- 『宣和奉使高麗圖經』